JETからの手紙

母国が見える国境の島で

長崎県対馬市　国際交流員
李　庚津（イ・キョンジン）

ここは対馬、国境の島

韓国人には「テマド（対馬島を韓国式に読んだもの）」という呼び名でよく知られている対馬は、長崎県に属し、日本の離島（北方領土と沖縄本島を除く）の中で３番目に大きい島です。島の約 90％が山林であり、現在の人口はおよそ３万人です。これに比較し、韓国の釜山（プサン）港国際ターミナルから対馬市を訪れる観光客の数は、2018 年には 40 万人を突破しました。

このように最近注目されるようになった対馬ですが、実は日韓両国の歴史の中でとても重要な役割を果たしてきたことをご存じですか？

まず、「世界の記憶」（世界記憶遺産）に登録された「朝鮮通信使」を外せないでしょう。朝鮮国王が幕府に送る公式外交使節団であった朝鮮通信使は、釜山を出発し対馬へ上陸したあと、対馬藩主に案内され目的地まで移動しました。

それから、戦後、一度途絶えた国交を回復することに貢献したのも対馬でした。また、韓国に初めてサツマイモが伝えられたのも対馬からでした。

対馬市の最北端から釜山までの距離はたったの 49.5 km！ 晴れた日には韓国が肉眼でも見えるぐらいの近さです。歴史に残された大きな交流以外にも、どれだけの民間交流が海を渡り合って行われてきたか、はかり知れません。

対馬市国際交流員の業務

対馬でも韓国への関心が日々高まっています。「街中でみかける韓国人観光客と挨拶をしたい」とか、「困っているとき助けてあげたい」、「仕事に必要」、「趣味で勉強したい」など韓国を知り韓国語を勉強したい市民は多くなってきています。このような声に応え、現在、ハングル及び初・中・上級会話の４クラスの韓国語講座を開いています。また、年３～４回行っている韓国料理教室も老若男女を問わず人気を博しています。

学校から授業の支援活動の依頼がきた場合は、学年や学習時間に合わせ韓国語、文化、料理などについての支援活動を行います。私の勤務地域には２校の中学校があり、国際ターミナルで生徒が作ったアンケート用紙を観光客に配り調査を行うフィールドワークを実施しています。「増えていく観光客と地元のために私たちができること」という大きなテーマの中で韓国を知り、実際に交流を行うというものです。この日のために韓国語を勉強し、身ぶり手ぶりを交えて一生懸命、意思疎通を図ろうとする生徒たちを見ていると、胸が高鳴り、やりがいを感じます。

通訳や翻訳も重要な業務です。上対馬地域最大のイベントであり、地元住民が総力をあげて準備する「国境マラソン in 対馬」は毎年 500 人近い韓国人が参加するプチ国際大会です。その他にも朝鮮通信使行列の再現が行われる「対馬厳原港まつり」、行政間の交流を行う「行

生徒がターミナルで韓国人観光客にアンケートを取る様子

「国境マラソン in 対馬」のポスタ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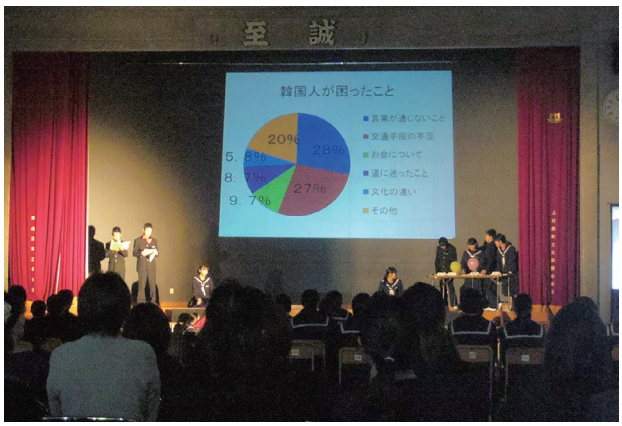
政交流セミナー」が開かれ、それらの時期には姉妹都市である釜山広域市影島区を始めとする韓国からの来賓の応対やイベントの準備等の業務に従事します。

これからの対馬と韓国

高齢化や過疎化が進む対馬市にとって韓国人観光客の増加は街に活気をもたらし経済的利益も期待できる一方、文化の違いや施設の不足などで起こるトラブルの原因にもなっています。

今後は、話し合い、理解し合う努力を惜しまずにこのような問題を解決し、共に発展できる方法を探すことが更なる交流の道につながると思います。

両国がつくり出す新しい歴史に少しでもお力添えできるよう私も頑張っていきます。



生徒が住民や他の生徒の前で発表をしている様子

プロフィール

李　庚津（イ キョンジン）

カルビで有名な京畿道水原市生まれの、生粋の水原市民。大学では日語日文学、大学院では日本語教育を専攻。国際交流員になったのは、鹿児島留学時代に知り合った日本の友人から教えてもらったのがきっかけ。趣味はゲームと旅行。

고국이 보이는 국경의 섬에서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국제교류원 이경진

여기는 쓰시마, 한국과 맞닿은 국경의 섬입니다.

한국인들에게 '대마도' 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쓰시마는 나가사키현에 속해있으며 일본 낙도 중 3 번째로 큰 섬입니다. 면적의 대부분은 산림이며, 현재 인구는 약 3 만 명입니다. 그에 비해 한국의 부산국제터미널에서 쓰시마로 입국하는 관광객의 수는 2018 년에 총 40 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주목받는 관광지인 이곳 쓰시마가, 사실은 오랜 옛날부터 한일 양국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가교가 되어왔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먼저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도 지정된 '조선통신사' 입니다. 조선이 일본에 보내는 공식외교 사절이었던 조선통신사는 부산에서 출발해 쓰시마에 상륙한 후 쓰시마번주의 안내를 받아 목적지까지 이동하곤 했습니다. 임진왜란 이후, 단절되었던 국교를 회복하는데 공헌한 것도 쓰시마번주이지요. 그리고 한국에 고구마가 처음 전해진 것도 바로 쓰시마를 통해서입니다. 쓰시마의 최북단에서 부산까지의 거리는 겨우 49.5km! 맑은 날에는 한국 땅을 맨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역사로 알려진 큰 교류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민간교류가 바다를 건너 이루어져 왔을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쓰시마시 국제교류원의 업무

쓰시마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과 인사를 하고 싶다", "일본어를 몰라 곤란해하는 경우에 도와주고 싶다", "일하는 데에 필요하다", "취미로 공부하고 싶다" 등 한국을 알고 싶고 한국어를 익히고자 하는 이유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이러한 시민의 요구에 맞추어 현재 한글 익히기, 초·중·상급 총 4 개의 한국어 강좌를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년에 3~4 회 정도 여는 한국요리 교실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의뢰가 오는 경우에는 학생들의 나이와 학습 시간에 맞추어 한국어, 문화, 요리 수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의 근무지역에 있는 중학교 두 곳은 국제터미널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만든 설문 조사지를 나눠주고 조사하는 현장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과 지역의 상생 방안을 찾는다' 는 큰 목표 아래 한국에 대해 알고 직접 교류해 보는 시간입니다. 이날을 위해 한국어를 공부하고, 손짓·발짓을 섞어가며 열심히 의사소통하는 학생들을 보면 정말로 뿌듯해지고 보람을 느낍니다.

통·번역 업무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특히 여름에 열리는 '국경 마라톤 in 쓰시마' 에는, 매년 500 명에 가까운 한국인이 참가하고 있으며, 조선통신사 행렬 재현을 볼 수 있는 '쓰시마 이즈하라항 축제', 행정적인 면에서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행정교류 세미나' 시기에는 자매도시인 부산시 영도구를 비롯한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여야 합니다.

앞으로의 한국과 쓰시마

인구가 나날이 감소하고 있는 쓰시마에 있어 한국인 관광객의 증가는 마을에 활기를 가져오고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문화의 차이와 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각종 문제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꾸준한 대화와 이해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함께 발전해나가는 방안을 찾는 교류의 길이 될 것입니다. 양국이 만들어나가는 새로운 역사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저 역시 노력하고자 합니다.

Profile

경기도 수원시 출생, 갈비를 사랑하는 수원 토박이.

대학교에서 일어일문학을, 교육대학원에서 일본어 교육을 전공함. 학부시절 가고시마국제대학에 1 년간 교환유학을 다녀왔고, 이때 사귄 일본인 친구의 제안으로 국제교류원에 지원하게 되었음. 현재 3 년차. 취미는 게임과 여행. 韓国語